



| 특집 | 북극해항로 운항 | 북극해 자원개발 | 북극해항로 운송화물 | NSR 운항선박 | 기후변화 | 항만 |

## [특집]

### 러시아정부의 북극해항로 관련 정책 수립 동향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 2016. 4. 1

- 동 3월호 특집은 지난 2월호 뉴스레터 특집 내용 중, 러시아정부의 북극해항로(NSR) 개발계획 수립 관련 내용을 추가 보완한 것으로, 러시아의 북극해항로 관련 부처 및 현재 러시아정부가 수립 중인 북극해 관련 정책을 간략히 소개드리는 것임. 현재 러시아정부가 북극해항로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러시아정부의 NSR 관련 정책 수립 동향 파악을 통해, 향후 NSR 발전 관련 러시아정부의 의지와 추진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음.
- 현재 러시아정부 내에 북극해항로의 개발을 전담하는 단일 조직은 없는 상태임. 관련 행정 부처로는 러시아교통부, 러시아극동개발부, 러시아경제개발부 등이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로 2015년 3월에 설립된 국가북극개발위원회가 있음(위원장: 로고진 부총리).
- 향후 러시아정부의 북극해항로 관련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은 2016년 6월말에 완성될 예정인 '북극해항로 발전 금융경제모델'임.

#### 1.러시아 정부의 북극해항로 관련 정책 수립 동향

##### 1) 러시아극동개발부의 '북극해항로 발전 금융경제모델' 수립 동향

- 푸틴대통령 지시에 의거, 러시아극동개발부(Ministry of Far East Development of Russian Federation)는 2016년 6월말까지 동 발전모델을 완성할 예정임.
-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정부 분석센터'(Analytical Center for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가 "Development of conceptual frameworks of competitive development model of the Northern Sea Route"라는 주제로 입찰에서 수주하였으나, 현재 미국 컨설팅회사인 McKinsey가 하청 연구기관으로 작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됨.
- 러시아정부의 국가북극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로고진 부총리는 어떻게 미국 컨설팅 회사인 McKinsey가 러시아의 북극해항로 발전 개념 수립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부총리는 러시아 극동개발부 갈루쉬카장관에게 왜 미국회사가 러시아 연구작업

에 참여했는지 확인요청을 했다고 함. (출처: 2016.3.25. www.lawinrussia.ru)

## 2) '2020년까지의 러시아연방 북극존 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 개정안 수립 작업

- 러시아 국가북극개발위원회 위원장인 로고진 부총리 지시에 의거, 러시아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가 작업 중이며 유관 부처들도 참여 중임. 2016년 4월 22일 러시아정부 연방회의에서 개정안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임.
- 동 프로그램에 따르면, 러시아북극개발의 우선순위는 러시아 북극존의 사회경제발전, 정보통신인프라개발, 환경보호, 북극에서의 국제협력 강화임. 러시아정부는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NSR을 국제수송로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수립 중임. (출처:www.arctic-council.org)
- 러시아 국가북극개발위원회는 2개의 자문기관인 '기업가회의'와 '과학전문가회의'를 두고 있음. 2016년 3월 9일 무르만스크에서 개최된 러시아 '국가북극개발위원회'에서 '기업가회의' 회장인 Mr. Sergey Shishkaryov는 북극해항로의 통합된 단일의 수송물류 운영 조직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하였음.

\*참고: 러시아 기업가회의 회장 세르게이 쉬시카레프씨는 현재 러시아정부 해사위원회(Marine Board of the Government of Russian Federation) 수석부의장임. '과학전문가회의' 의장인 칠링가로프씨는 푸틴 대통령의 북극 및 남극 국제협력 특보임.

## 2. 북극해항로 개발에 대한 회의적 시각 (러시아 연방회의 (상원) 슈티로프 의원)

- 러시아 연방회의 북극남극위원회 산하 북극존 경제개발 분과회의 회의에서 바체슬라브 슈티로프(Vyacheslav Shtyrov) 연방회의 국방·안보위원회 의원은 "현재 북극해항로가 어떻게 정비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비전이 없다"고 비판함. 그는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항에 대규모 화물 허브를 조성하려는 러시아극동개발부의 비전은 화물기반이 동쪽에서 생성되지 못하므로 비현실적이고, 다량의 컨테이너를 NSR로 수송하는 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봄.
- 그의 견해로는, 러시아 내에 북극해항로의 개발을 전담할 조직이 사실상 없다고 봄. "만약 이론 부분을 러시아 교통부나 러시아경제개발부가 맡는다 하더라도, 실제 실무부분을 담당할 조직이 없다."고 언급함. "현재의 북극해항로국(NSRA)은 운항 질서를 관리하는 감독기관이며, NSR 관련 제반 업무 조직자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음. NSR 항행 관점에서 운송, 운송수단, 인프라 구축사업의 개발을 전담할 주체는 없다"고 봄.
- 2016년 4월 22일에 개최될 연방회의 산하 북극남극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법적 구체화 작업을 위한 기본 구상 논의가 이뤄질 예정임. (출처: 2016.3.25. www.pnp.ru)

## 3. 기타: NSR 관련 중국 동향

### 1) 중국 국영선사 COSCO와 미국 선급 ABS간 북극해 운항 협정 체결

- 2016.2.5. 상해에서 ABS 중국 지사장 및 COO(Chief Operating Officer) 에릭 클리스(Eric Kleess)와 COSCO 안전기술감독부 책임자 차이메이장(Cai Meijiang)은 북극해 운항 협정을 체결하였음. 쌍방은 기후변화를 이용한 신규 비즈니스를 개발하여 북극해 지역에서의 해상운송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모색하려함.
- 양측은 합작 체결을 통해 COSCO가 북극해항로 사용을 확대하고, 더 많은 무역 기회를 모색

할 것이라고 밝힘. 이외에도 양측은 북서항로의 항해와 내빙선박 운항기술 개발을 연구할 계획이라함. 클리스는 ABS가 COSCO와 공동으로 무역항로 발전을 개척할 것이며, ABS의 기술경험과 COSCO "Yong Sheng"호의 성공적인 북극해항로 운항경험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북극해항로 운항의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참고: COSCO 안전기술감독부 책임자인 차이메이장(Cai Meijiang)은 COSCO의 북극해항로 운항 책임자이며, NSR 운항 내빙선박 Yong Sheng호의 운항을 계획하고 실현하였음

## 2) 중-러 양국 정부 연례 정상회담 시, 중-러 북극해항로 공동 개발 합의

2015.12.18. 북경에서 거행된 중-러 총리 정례회담 시, 중국 Silk Road Fund의 Yamal LNG 프로젝트 참여 협정, 중-러 북극해항로 공동개발 이슈 관련 MOU가 체결되었음. 러시아극동개발부 갈루쉬카장관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을 중국의 'Silk Road' (일대일로 전략 일환)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함.

## 4.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의 평가

- 향후 북극해항로 해상운송 관련, NSR을 관할하고 있는 러시아정부의 NSR 관련 정책 수립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현재 미국 Mckinsey 참여 하에 2016년 6월말 완성 예정인, 러시아 극동개발부의 '북극해항로 발전 금융경제모델' 내용이 7월 중 푸틴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므로, 입수하는 즉시 국내에 소개해 드릴 예정임.
- 현재, 러시아정부는 북극해항로 개발 관련, 주로 러시아 북극해 Yamal 지역의 탄화수소자원의 유럽, 아태지역 수송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2015년 이래 푸틴대통령 지시에 의거, NSR을 유럽과 아시아간 국제수송로로 개발하려는 구상도 동시에 고려중이므로, 러시아정부의 NSR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NSR 운항 관련 주무부처인 러시아교통부가 주로 NSR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이제 러시아극동개발부도 NSR 개발에 관여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현재 러시아극동개발부의 NSR 관련 전문성은 매우 부족해 보임.
- 상기 러시아 상원의원의 부정적인 NSR 시각 관련, 정치인들의 NSR 평가를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지적은 현재 러시아의 NSR 관리 상황을 잘 표현한 것임.
-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아시아 국가들 중, 중국이 가장 장기적 관점에서 북극해 자원개발 및 북극해항로 진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바, 중-러 협력하의 NSR 운항 동향 및 러시아 정부의 NSR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북극해항로 진출 관련, 우리나라 유관 부처 및 업체의 북극해 진출 활동상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볼만한 시점이라 판단됨. 끝.

## <북극해항로 운항>

### ○ 로고진: 러시아 교통부에 물류비 분석 및 북극해항로국 업무개선 위임

물류비를 계산하여 교통부의 라인별 보유자금을 계획된 국가프로그램에 준해서 맞추고, 북극해

항로국의 업무개선안을 검토할 것을 교통부에 위임했다고 국가북극개발위원회 간부회의에서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가 전함. 특히, 북극해항로의 경제적 잠재력 개발에 동 부처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언급함.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러시아에 대안은 없음. 파트너들과 대화하며, 북극해항로 통과와 물리적 안전성부터 화물수송 속도까지 모든 수익성을 확신시켜 줄 책임자가 필요함. 북극해항로의 경제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오퍼레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지금, 모든 위험성과 경제적 수익들을 계산할 필요가 있음. 이는 북극해항로를 경유해서 동에서 서쪽으로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할 잠재적 파트너들과의 대화 조성에도 매우 중요함. 북극해항로상의 항구들로 자국 상품들을 운반하는 방법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부총리가 말함.

출처:www.morvesti.ru 2016.03.09.

### ○ 북극해항로(NSR), 20년후 수에즈운하 대체 가능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해양부의 새로운 보고서에 의하면, 얼음층(ice cover)이 현재의 속도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조건하에, 북극의 화물 수송노선은 2040년에야 경제적으로 타당하게 될 수 있음. 동 항로가 컨테이너화물 운송에서 수에즈운하를 대체할 수 있는 확률은 최소 향후 20년 동안은 매우 낮음.

NSR 항로를 이용하면, 유럽-아시아 노선이 현재의 수에즈운하 노선대비 40% 정도 단축될 수 있음. 그럼에도, NSR을 경유한 벌크화물, Offshoring, 정기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해상활동이 금세기 중반까지 현저하게 증가한 것은 아직은 더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 생태 안전성, 접근성, 남부 항로 대비 높은 비용, 현행 북빙해 해양업무 관련 국제 규정의 부족 등에서 기인함.

북극해를 경유하는 정기 운송이 채산성이 있으려면, 더 거대한 틈새시장을 점유해야 하며, 이는 초대형 선박들로 가능할 것임. 특징, 크기, 엔진 타입, 출력, 평균 속도, 거리, 노선, 통과료, 적재량을 고려하여 8000 TEU 표준 컨테이너선과 비교한 결과, 보고서는 지금 내빙 컨테이너선에 투자하는 것은 손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줌.

출처: http://www.logistic.ru/ 2016.02.10.

### ○ 러 극동개발부 차관: 북극해항로 발전모델에 新극동경제가 반영되어야

로고진 부총리가 주관한 무르만스크 국가북극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세르게이 카차예브 극동개발부 차관은 “新극동경제가 북극해항로 발전모델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발언함. 북극해항로 발전 금융경제모델 개발은 금년 7월 1일까지 완수되어야 함. 현재까지 북극해항로 발전을 위한 거시경제 조건의 기초 분석과 유럽-아시아, 유럽-북미 서안 노선들의 물류 분석이 완료됨.

- NSR항로 발전모델 설립에 3가지 중요 요소가 고려되고 있다고 카차예브 차관이 언급함. 첫째, 동 항로 물동량의 성장 동력으로써 2가지 운송 유형 (북극존 자원프로젝트 제품 수출과 유럽-아시아 항구들 간의 컨테이너 화물을 포함한 화물 통과 운송)을 검토함. 동남아시아-유럽 간 컨테이너 운송이야 말로 운송 동력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성격을 부여해, NSR항로의 폭발적 발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

둘째, 자국 및 해외 기업들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함. “러시아-외국 선주들, 화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국내 파트너들을 보고, 동 모델을 통해서 북극해항로를 사용한 자기 사업발전의 모든 이점과 리스크를 봐야 함. 이러한 방법이 실현되었을 때 NSR은 실제로 국제적이고 경쟁력있는 운송로가 될 수 있다고 차관이 강조함.

셋째, NSR 금융경제모델과 극동지역의 총체적 발전을 새로운 경제기구 및 기회들(선도적 개발 지역들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과 연결시키는 것임. 러 극동개발부가 개발, 정부에 법안 제출하였으며, 캄차트카, 하바로브스크, 사할린, 추코트카에 자유항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함. 북극해항로의 효율은 자유항 내에 수출지향 산업과 물류허브를 조성하는 것에 있음.

예를 들어, 북극해항로 경유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물류 허브 조성은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항 선도개발지역 내에도 검토되고 있음.

선도개발지역, 자유항들, 극동개발펀드 투자, 투자프로젝트들에 대한 국가의 인프라 지원 등 모든 도구들은 극동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높고 활발한 투자수요를 동시에 만들고 있음. 극동의 신경제(새로운 공장들, 회사들, 기반시설)는 북극해항로 발전 금융경제모델에 단연코 반영되어야 한다고 카차예프 차관이 설명함. 동 회의에 행정부 연방기관 대표들, 북극 연방주체 대표들, 기업대표,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여했음.

출처:<http://minvostokrazvitia.ru/> 2016.03.10.

#### ○ 로고진: 북극해항로 공동개발위한 러·중 실무회의 개최 예정

북극해항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 왕양 부총리가 참여하는 양자회의의 실무회의중 하나를 북극지역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리아 노보스찌가 로고진 부총리의 말을 전함.

가장 중요한 것은 북극해항로의 물류를 보장할 수 있을만한, 우선적으로, 중국같이 거대한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부총리가 설명함. 북극해항로를 무역에 사용할 때의 이점을 중국 파트너에게 기술할 계획이라고 동 매체가 전함.

출처: <http://www.arctic-info.ru> 2016.02.26.

#### ○ 북극 신항로 2080년에 열릴 수 있어

영국 국립해양연구소 과학자들의 조사연구 자료에 따르면, 여름에 북극점을 경유하는 상업 운송이 21세기 말에는 가능해져서, 북극항행이 유럽-아태국가들 간 총 운송의 10%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캐나다와 시베리아 연안을 따라 산업체와 주민들에게 공급하는데 동 신항로가 도움을 주게 될 것임.

동 연구소의 해양모델을 활용한 시뮬레이터에 의하면, 2040년에 북극 하절기의 얼음층은 약 40%가 깨진 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됨. 이로 인해, 특수보강선박들이 시간과 연료를 현저히 감소시키면서 북위도 지역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임.

영국 국립환경연구위원회가 자금 지원하고, 산업 발전에 해양조사를 이용하기 위한 유럽의 프로젝트 SWARP의 일환으로 시행됨. 시범운항은 2040년으로 계획됨.

출처: <http://www.sur.ru/> 2016.02.19.

### ○ '로스네프트'사, 이탈리아 'Pietro Barbaro'사와 합작회사 설립 예정

'로스네프트'사와 유조선 운송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인 이탈리아 'Pietro Barbaro S.p.A.'사 간에 국제해상운송 분야의 합작회사 설립준비를 위한 MOU가 조인됨. 양측 실무그룹의 설립형식 분석 후 금년 내에 합작회사가 설립될 것으로 기대됨.

석유 및 석유제품의 국제운송 분야에서의 이와 유사한 연합에서 오는 거대한 시너지 효과 때문에 양측은 프로젝트 전망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동 회사 공보실이 전함. 러시아 합작회사 설립 후 세계시장에 공동 진출할 계획임. 이것으로 자사 물류 계열사의 경제 효용이 현저히 높아져, 자사 제품의 고수익 시장 판매를 위한 추가 가능성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이고르 세친 '로스네프트'사 사장이 말함.

합작회사에 모든 노하우와 물류에 대한 열정을 제공할 것이라고 조반니 바르바로 'Pietro Barbaro'그룹 대표가 강조함.

출처: <http://rus-shipping.ru/> 2016.02.11.

## <북극해 자원개발>

### ○ EU의 대러 제재 해지 관련, 첫 심리 열려

룩셈부르크의 유럽사법재판소에서 2015년 2월 18일에 시작된 '로스네프트'사가 EU 이사회를 상대로 낸 러시아 기업에 대한 유럽의 제재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사건 72/15의 첫 심리가 시작되었다고 재판소 공보실의 보도를 인용하여 TASS가 전함. 현재 동 재판소에 동 회사와 관련해서 2건이 접수되어있음.

동 회사 사건의 심리로 다른 3곳의 러시아 기업 '가스프롬 네프트', '스베르뱅크', 'VTB'의 제재반대 소송 심리를 위한 선례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EU 이사회에 대한 동 회사의 주장은 특별한 의미를 지님.

EU 이사회는 2014년 7월 31일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은행, 방산기업, 석유기업 5곳에 대한 금융경제 제한을 포함한 대러 경제제재를 실시하였음.

북극 대륙붕 프로젝트는 동 회사의 전략분야임. 동 회사는 러시아 대륙붕 개발의 선두주자로서 라이선스 구역 48곳(총 45십억 톤 TOE)을 보유하고 있음.

출처: <http://www.arctic-info.ru> 2016.02.24.

### ○ 러시아지질협회, 북극 수송접근성 개발프로젝트 준비 중

러시아지질협회가 북극 수송접근성 개발 및 유용광물개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세르게이 쇼이구 협회장이 목요일 동 협회 본부에서 말함.

동 프로젝트는, 이미 조사·발견된 대부분의 유용광물 매장지들을 해상·하천 운송시스템과 묶고, 더 나아가 이 광물들을 바다와 하천에서 철도로 보내고, 그리고, 이곳 북쪽지역에서 지구 어느 지역으로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연구소들과 경제지리학 전문가들의 공동프로젝트는



금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회장이 말함.

출처: <http://ria.ru/> 2016.02.18.

○ **러시아 에너지부, 2035년 북극해 대륙붕 석유채굴량 31-35백만 톤 계획**

러시아 에너지부의 에너지 전략에 따라, 2035년까지 오호츠크해 대륙붕 포함하여 북극권 석유 채굴량이 31-35백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키릴 몰로드쵸브 에너지부 차관이 <Arktika-2016>회의에서 전함.

출처: <http://pro-arctic.ru/> 2016.02.18.

○ **'야말 LNG'사, 생산 예정인 LNG 전량 사전 완판**

'노바텍'사 신설공장 가동이후로 채굴이 계획된 LNG가스 전량을 중국과 아태지역 국가들이 평균 20년 장기계약으로 이미 선구매했다고 월요일 예브게니 코트 '야말 LNG'사 대표가 Kommersant FM 방송에서 전함.

총 계약량의 83%가 아태지역 시장으로 갈 것임. 중국국영석유가스공사(CNPC)가 자국의 내수 시장을 위해 3백만 톤을 계약했으며, 다른 몇몇 구매자들도 중국시장으로 납품할 것이라고 동 회사의 대표가 전함.

동 회사는 연 16.5백만 톤 규모의 LNG가스 생산공장 건설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17년부터 최소 35년간 생산할 계획임.

○ **영국 'BP'사, 북극 진출 모색**

영국 석유화학기업 'BP'사가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의 유망 자원매장지 개발에 '로스네프트'사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음. 동 회사는 오래전부터 북극 대륙붕지역에서 '로스네프트'사와 협력하기를 열망했으나, 2011년 AAR 컨소시엄 주주분쟁 이후로는 '로스네프트'사의 최대 주주이자 기관 투자자로만 머물고 있음.

동시베리아 Xatanga 구역(랍테프 해와 하탕가 만 사이에 위치, 매장량: 석유 82백만 톤, 가스 228십억 CBM)에서 양사의 합작회사('BP'사 49%)의 발전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이고르 세친 '로스네프트'사 사장이 런던 <IP Week>에서 발언함.

출처: [www.kommersant.ru](http://www.kommersant.ru) 2016.02.12.

○ **'Total'사, <Gydan LNG>프로젝트 참여 가능**

프랑스 'Total'사가 Gydan 반도(서시베리아 북쪽 평원, Kara해에 위치)에 LNG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노바텍'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Michael Borrell 유럽대륙·아시아시장 수석부사장이 'International Petroleum Week' 포럼에서 기자에게 전함. 현재 동 회사는 '노바텍'사의 <Yamal LNG>프로젝트에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정부명령으로 '노바텍'사는 Gydan 반도로부터 LNG가스 수출할 권리를 확보함. 생산량 5-5.5백만 톤 액화공장 제 1기는 2018~2022년에, 제 2기(5-5.5백만 톤)는 2019~2024년, 제 3기(유사함)는 2020~2025년에 착공·가동할 계획임.

출처: <http://tass.ru/> 2016.02.11.

### ○ 노르웨이 에너지부 장관: 러·노르웨이 협력 더 긴밀해질 수 있어

서양의 대러 제재는 러·노 경제협력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많은 분야에서 러·노 협력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양국관계의 강화·구축을 위한 분야는 충분하다고 토르드 린 노르웨이 에너지부 장관이 케임브리지 에너지 연구소 연례회의(CERA Week)에서 밝혔다고 리아노보스씨가 전함. 러시아법상 자국의 북극 대륙붕에서의 탐사·채굴권을 상실한 '루코일'사는 노르웨이 대륙붕의 새로운 석유가스 라이선스 확보에 '로스네프트'사와 경쟁할 예정임.

출처: <http://pro-arctic.ru/> 2016.02.24.

## <북극해항로 운송 화물>

### ○ '트란스네프트'사, 경제성 때문에 북극해항로 경유 석유수송 포기

러시아국영 석유수송 독점기업인 '트란스네프트'사가 Sabbeta항 인근지역 석유 약 4천만 톤을 북극해항로를 통해 수송하는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자사의 높은 인프라시설 건설비 때문에 이 착상을 포기했다고 라심 민가제트디노프 동 회사 전략개발국 국장이 회사 전문가위원회 회의에서 전함.

기존 인프라 시설들의 현대화 외에도, 총 400km의 송유파이프라인을 Ob 만(Kara해 최대 만, Gydan반도와 Yamal반도 중간에 위치)까지 건설하고, Sabbeta항 맞은 편, 이 만의 우측 해변에 터미널을 건설해야 하는데 총비용이 약 USD 5십억이 든다고 국장이 말함.

출처:<http://tass.ru/> 2016.03.10.

### ○ 일본, 북극해항로로 게 수입계획

일본 'North Japan Port Consultants Ltd.'사 운영기획부 부장 Natsuhiko Otsuka씨가 이끄는 사절단이 무르만스크 주를 방문, 주 정부대표들과 북극해항로의 이용 현황과 화물운송 규모 확대 전망에 대해 논의함.

현재 개조중인 원자력 래시선 'Sevmorput'호가 해상으로 화물을 운송할 계획임. 일본 측 대표들은 석탄과 석유화물·컨테이너 환적용 해상 심수터미널 건설과 여객 유동 증대위한 환경조성 등을 포함하는 <무르만스크 수송망 종합개발>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임. 주 정부는 동 프로젝트 투자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일본 대표단들에게 건의함.

출처: <http://www.tv21.ru/> 2016.03.10.

### ○ 2015년 북극해항로 물동량 5.39백만 톤까지 증가

2015년 북극해항로 총 운송량은 539만 2천 톤으로 2014년 대비 45.4% 증가함. 이 중 일반화



물- 3,982,600 톤(+1.6배), 석탄- 355,900 톤(+1.5배), 광물-79,800 톤(-1.3%), 가스콘덴세이트- 144,400 톤(-8.2%), 석유 및 석유제품- 859,500 톤(+13.5%)임.

2015년 북극해항로 통과운송은 건화물 39,600 톤(2014년대비 -6.9%)이었으며, 액체화물은 없었음. 2015년 북극해항로 항행 허가 715건, 이 중 125건이 외국적선이었음(북극해항로국 자료). 서쪽에서 동쪽방향으로 19,000 톤, 동쪽에서 서쪽으로 20,600 톤이 운송됨.

2015년 통과 운항 - 총 18건, 이 중 외국국적선 - 6건임.

러시아해상하천운송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항행기간에 동 해역 안전한 선박 도선에 디젤쇄빙선들과 함께 원자력쇄빙선 '바이가치'호, '야말'호, '타이미르'호가 종사함. 북극해항로의 평균 통과시간은 10.6일이었음.

출처: <http://rus-shipping.ru/> 2016.02.15.

### ○ 2025년도 세계 LNG 시장, 러시아가 7% 장악할 것

세계 LNG 시장의 전망을 판단하여,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Yamal, Gydan 등 지역의 LNG 개발 종합계획 발굴을 허가, <Yamal LNG>, <Arktik LNG> 프로젝트를 승인함. 2025년까지 세계 시장의 7%를 점유하게 될 33백만 톤의 LNG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동 프로젝트들의 목표임. <Yamal LNG>프로젝트는 45% 완료되어, 내년 가동예정인 LNG공장 1기가 56% 완공되었다고 데니스 흐라모프 천연자원환경부 제 1 차관의 말을 TASS통신이 전함.

'노바텍'사는 <Arktik LNG>프로젝트에 일본기업들을 유치할 준비가 되었음. 동 프로젝트의 협력 윤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러-일 협력에 중요한 옵션으로 보고 있음. 즉, 프로젝트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참여 조건의 원칙이 설정과정 중에 있는 바로 지금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일본기업들에게는 충분히 설득적이고, 유일한 시기일 수 있다고 흐라모프 제 1차관이 말함.

출처: <http://www.arctic-info.ru> 2016.02.29.

## <NSR 운항 선박>

### ○ Arc7급 유조선들, Novoportovskoe 유전 석유 5.5백만 톤 수송 예정

'가스프롬 네프트'사의 Novoportovskoe 유전(추정가체매장량: 석유 콘텐세이트 C1,C2 -250백만 톤, 가스-320십억 CBM)에서 석유를 연중 내내 반출하기 위해 건조중인 Arc7급 유조선 6척이 석유를 연 5.5백만 톤까지(월 약 45만 톤)수송할 것이라고 동 회사 공보실을 인용하여 TASS가 전함.

이 중 첫 번째 탱커가 3월 4일에 진수되었음. 동 탱커의 적재량은 약 38천 톤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선박들보다 2배가 많음.

건조되고 있는 유조선들은 러시아에는 없는 것으로 Ob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되었으며, 쇄빙선이 낸 얼음길을 따라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왕복운항 시간을 단축시키고, 북극 물류

패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아나톨리 체르네르 동 회사 물류가공판매 부사장이 말함.

출처:www.morvesti.ru 2016.03.09.

### ○ 국가북극개발위원회 기업회의: 'Sevmorput'호 캄차트카로 항행 가능

2월 5일 모스크바에서 국가북극개발위원회 기업회의가 세르게이 쉬쉬카료브의 주도하에 개최됨. 러시아 북극 연안지역의 현안문제들과 이 지역 발전의 유망한 전략 등을 검토함.

동 회의에서 원자력 래시선(Lash) 'Sevmorput'호의 무르만스크-페트로파블로브스크 캄차트카 노선의 시범 왕복운항에 관해 논의함. 동 선박의 과제는 북극 운송노선을 경유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의 타당성 확인, 허브항으로서 무르만스크, 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트카 항만의 물류 시스템(logistic scheme) 테스트, 제시된 수송 개념의 강점과 취약점을 밝히는 것임. 시범운항 결과는 전략문서 수정과 러시아 북극 구역에서의 정기 상업항행 조직에 사용될 것임.

극지경유 통과항행 조직의 원칙을 정해야 함. 상업적인 성격을 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시험 운항이 될 것인가에 따라 국가기관의 프로젝트 참여도를 정해야 하고, 시험운항의 메인 주관 기구를 확정해야 함.

직접 지원 또는 책임 용선자에게 재정보증을 하는 등 자금조달원 및 방법을 결정해야 함.

시범운항 시기를 니콜라이 페킨('Kamchatka Development Corporation'사 대표)과 이반 카프랄로프('Petropavlovsk-Kamchatski commercial seaport'사 대표)는 7월 중순에서 9월 초순, '아툼플로트'사는 10-11월을 주장함. 6월에 있을 동 회의에서 북극해항로 종합발전프로젝트 시행에 관해서 니콜라이 페킨이 발표할 계획임.

출처: <http://pro-arctic.ru/> 2016.02.17.

## <기후변화>

### ○ 핀란드 외무부장관: 북극관련 국제법 변경 제의

티모 소이니 핀란드 외무부장관이, 자신은 지구온난화 확률을 제로로 보고 있지만, 북빙해 해역이 얼음에서 벗어나서 이 지역에 세계 대양선박의 운항이 자유로워지는 긍정적인 전망과 관련해서, 북극의 선박운항, 조업, 자연보호구역에 관한 국제법 규정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워싱턴 DC에 소재한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에서 제의함.

어느 부분의 변경을 타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비록, 캐나다가 단호하게 나오고 있는 자유항행에 반하는 북서항로와 더 관련되지만, 러시아 매체들은 한결 같이 북빙해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출처:www.artic-info.ru 2016.02.08.

## <항만>

### ○ 쇄빙선, Sabetta항에서 총 127척 도선

러 연방해상하천운송청 자료에 의하면, 쇄빙선 도선 개시이후 2월 19일 현재 Sabetta항에서 선박 총 127척을 도선함. 항내 구역에서는 쇄빙선 'Moskva'호, 'Tor'호가, 동 항구로의 도선은 원자력쇄빙선 'Vaygach'호가 종사함. Sabetta항의 빙해역 항행제한은 Ice3 이상임.

Dudinka항내 구역에서는 'Dudinka'호와 'Avraamiy Zavenyagin'호가, 동 항구로의 도선은 원자력쇄빙선 'Taimyr'호가 담당함. Dudinka항의 빙해역 항행제한은 Ice3 이상임.

출처: <http://rus-shipping.ru/> 2016.02.20.

### ○ 일본, 북극해항로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어

알렉세이 튜카빈 무르만스크주 부주지사가 Natsuhiko Otsuka 일본 사절단대표, 'North Japan Port Consultants'사 운영기획부 부장과 만나, 북극해항로 공동개발계획을 논의함.

담화 중에 북극해항로의 이용 현황 및 동 항로 화물운송량의 증가 전망에 일본 측이 많은 관심을 보여서, 무르만스크항과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항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러한 북극해상운송은 원자력 래시선 'Sevmorput'호가 맡을 수 있다고 부주지사가 말함.

금년에 '아툼플로트'사는 무르만스크-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 간 화물운송을 위해서 북극해항로 이용시간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는 원자력 래시선의 운영을 재개할 계획임. 컨테이너 노선 시범운항은 금년 가을에 계획 중이라고 부주지사가 사절단에 말함.

계 및 수산물의 일본반입을 위해 북극해항로를 이용하는 것에 사절단이 관심을 표명함. 회담 중 얻은 정보는 일본기업들을 위한 향후 정보제공과 잠재적 비즈니스파트너 모색을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전달될 예정임.

출처: [www.artic-info.ru](http://www.artic-info.ru) 2016.03.11.

### ○ 무르만스크 수송망 제1기 공사분 2018년 완공예정

무르만스크 수송망 종합개발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 중임. 동 수송망 제 1기 공사분이 2018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빅토르 올레르스키 교통부 차관, 해상하천운송청 청장이 국가북극개발위원회 회의에 앞서 전함.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중단할 계획이 없음. 이전의 자금조달 문제 해결에 '가스프롬뱅크'가 도움을 줬다고 차관이 말했다고 TASS가 전함.

동 수송망은 석탄·석유 터미널 건설, 철도 인프라 개발, Kola만의 서쪽 해안 수송 인프라 조성 및 동쪽 해안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등이 포함되는 러시아 북쪽 연안 최대의 수송망임. 동 프로젝트는 민관협력으로 실행되고 있음.

출처: [www.artic-info.ru](http://www.artic-info.ru) 2016.03.10.

### ○ 북극 해양클러스터, 무르만스크에 결집

3월 16-18일 MurmanEXPO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제 XVII회 수산박람회<바다. 자원. 기술 2016>에 북극 해양클러스터(Arctic Maritime Cluster)가 최초로 참여할 것임.

동 클러스터는 네트워크협력 개발프로그램임. 'Innovation Norway'가 관리하는 AREN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르웨이 정부가 지원함. 프로젝트 소유자는 'Maritimt Forum Nord', 관리지도는 'Transportutvikling AC'사가 맡고 있음.

북극 활동에 있어 노르웨이의 중추적인 해양클러스터가 되어, 북극에서의 해양공학발전을 위해, 그리고, 노르웨이 및 해외 북극 시장에서의 영리활동을 위한 파트너 선정 시 최고로 유리한 조건의 납품자로서 동 클러스터의 참여자들과 파트너들이 자리를 잡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전략목표임.

현재 동 클러스터에는 북극 여러 지역에서 해양비즈니스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44개의 노르웨이 기업 및 기관들(해운회사 9개, 선박 수리회사 5개, 장비 공급납품·서비스회사 14개, 대학 및 연구소 8개 등)이 연합하고 있음.

출처: <http://pro-arctic.ru/> 2016.02.17.

#### ○ '가스프롬'사, Yamburg항 현대화, 준설작업 계획

'가스프롬'의 계열사인 '가스프롬 도비차 암부르그'사(100% 지분보유)가 Yamburg항(Ob만에 위치)을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세르게이 쿠로파트킨 동 회사 과장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북극과 대륙붕 프로젝트들:지역의 전망, 이노베이션, 발전>에서 PortNews에 전함.

동 프로그램에 해상크레인 설치를 위한 준설작업(8m까지)과 안벽 건설이 포함됨. 본격적인 항구 현대화 작업은 2020년에 착수될 계획임. 이외에도, Mys Kamenny(Ob만 서쪽, Yamal 반도에 Yamal 지역에 위치) 지역에 자사 그룹전체를 위한 사고구조 총괄기지를 조성할 계획임.

출처: <http://portnews.ru/> 2016.02.18.